

金 淨禹

経営情報学部
総合経営学科 進学



저는 한국에서 1년 동안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에 왔지만, 실력은 n3조차 따지 못한 상태였고,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매일 일본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 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결국 n2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흥미라고 느꼈습니다. 일본어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 일본어로 대화할 때나 물건을 살 때, 행정 절차를 밟을 때처럼 일본어가 필요할 때마다 '더 잘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교재로 공부할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표현들도, 직접 써보면서 몸으로 익히니까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생활 자체도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은행계좌 개설, 건강보험 가입, 집 구하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 준비조차 낯설었고, 처음해보는 독립이라 적응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별과에서 생활하면서 천천히 배우다 보니, 졸업할 때에는 이미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별과 없이 바로 학부에 갔다면, 학업과 생활 적응을 동시에 해야 해서 훨씬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별과를 거친 덕분에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생활 자체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실력이나 생활 적응이 걱정된다면, 별과를 통해 천천히 준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